

‘글쓰기’란 이름의 소통의 마법

최근에 개봉한 해리포터 마지막 시리즈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2〉를 본 적 있는가. 해리포터와 그의 친구들이 활동하는 마법 세계 속에서는 마법의 주문이 하나의 소통의 도구로서 때로는 타인을 공격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막이 되기도 한다. 어쩌면 마법이 아닌 ‘현실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마법의 도구는 ‘좋은 글’이 아닐까 싶다. 어떤 생각을 표현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글은 타인의 마음속에 날카로운 상처를 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치유하는 위대한 일을 해낼 수도 있다. 예컨대 연사를 초청하는 글, 친구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 등이 그러한 예이다.

글이 지닌 마법의 힘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글의 의미’는 무엇이고, ‘좋은 글’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 필자에게 있어서 글은 ‘소통의 수단’이다. 이는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글의 본분을 망각한 글들을 자주 목격하고, 스스로 쓰곤 한다.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는 현학적인 글이나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글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린 글이다. 애초에 ‘훈민정음’이란 문자를 창제한 세종대왕의 뜻은, 글과 문자는 곧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쉽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었다. 그렇다면 좋은 글이란 전달, 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글쓴이의 의도대로 수행하는 데 성공한 글일 것이다.

좋은 글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이 나름대로 정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실천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소논문 과제나 리포트 과제가 주어질 때마다 조금이라도 제출 일을 늦추려고 하고 ‘언제 다 쓰지?’라는 걱정부터 떠오르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글쓰기에서 직면해야 했던 가장 주요한 고민은 세 가지였다. ‘무엇을 쓸 것인가’,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어떤 순서로 글을 배열할 것인가’가 바로 그것이다. 고민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고민은 글의 내용

● ● ●
권민정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에 관련된 것이고, 세 번째 고민은 글의 형식과 관련된 것이다. 먼저 첫 번째 고민과 관련하여 필자는 항상 글을 시작할 때마다 무엇을 써야 할지에 대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곤 했다. 늘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적인 지식들을 타하면서 ‘모르는데 어떻게 글을 써?’ 하면서 자책했던 순간들이 많았다.

하지만 자책의 순간마다 내가 시도한 해결책은 결국 ‘자신에 대한 확신’ 과 ‘무작정 찾아 읽기’ 였다. 예컨대 자유주제로 주어진 글에서 ‘사회적 기업’ 에 관해서 쓰고 싶다는 막연한 끌림을 느낄 때, 특정 소재에 대한 끌림과 선택은 과연 임의적이고 우연적인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슈화되어 자주 들었던, 자신이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있든 간에 떠오른 소재는 마땅히 그 순간에 선택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잘 모르는 소재라고 해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으며, 때로 글은 ‘소통의 수단’ 이자 ‘배워가는 과정’ 그 자체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소재를 선정하고 나면 흔들림 없이 그 소재에 대해 배우고 알려는 노력이 글을 풍성하게 만드는 지름길일 것이다. 그 노력은 결국 ‘소재와 관련된 책’ 을 찾아 읽어보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렇다고 무작정 정보를 찾아 읽는다는 것이 읽는 과정 자체가 무질서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제에 관한 내 생각은 무엇인가?’ 라는 두 번째 질문은 책 속의 정보를 지은이가 배열하고 전달한 방식과는 다르게 자신만의 틀로 어떻게 정제할 것인가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모르는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대상에 대해 필자가 말하고 싶은 바, 주장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쓰기의 둘째 단계가 던진 난관에 대하여 필자는 유형화 방식을 많이 활용하였다. 유형화 방식이란 바로 ‘자신이 선정한 기준’ 에 바탕해 카테고리를 나누고, 대상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기억’ 이라는 주제가 던져졌다고 한다면, 기억을 분류하는 기준에는 정확도, 기억하는 주체, 기억되는 대상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이 가운데 특정 기준에 따라 기억의 유형을 나누고, 다양한 유형의 기억들을 서로 대조하다 보면, 대상 소재를 이해하는 자신만의 특정한 방식이 자연스레 정립되는 것이다. 비록 수많은 시행착오와 오류가 동반되겠지만, 이러한 특정한 이해방식은 곧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에 관한 필자만의 생각과 의견을 이끌어내는 실마리로 기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순서로 글을 배열할 것인가’ 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이해와 의견을 간단하게 메모하고 정리하는 데에서 해결의 문이 보이곤 했다. 필자에게 있어서 여전히 개요는 글을 단정하게 쓰기 위한 믿음직한 도구인데, 이는 개요가 글의 구조

를 가장 쉽게 알아보고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머릿속의 생각이 정리 되지 않을 때, 이해한 내용이 혼란스러울 때, 기막힌 돌과구가 떠오를 때 적는 간단한 메모들은 충실한 개요를 위한 준비운동이다. 그리고 글을 쓰기 전에는 이러한 생각덩어리를 비슷한 크기의 것으로 나누어 각각의 생각 덩어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여 배열했다. 분절된 그림카드들을 배열하는 순서에 따라 이야기의 내용이 달라지듯이, 글에서도 생각덩어리를 배열하는 순서에 따라서 글쓴이의 말하고자 하는 바가 상이해진다.

지금까지 살펴 본 '무엇을 쓸 것인가',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어떤 순서로 글을 배열할 것인가' 의 세 가지 고민을 '소통의 수단' 과 관련된 고민으로 변환하여 보자면 다음과 같다. '무엇에 대하여 타인과 대화하고 싶은가', '그 소재에 대하여 전달하고 싶은 나만의 생각은 무엇인가', '어떤 순서로 대화를 유도하면 타인에게 왜곡 없이 생각이 전달될까'. 오늘날 많은 말과 글들은 끊임없이 잘못 전달되고, 왜곡되며 또 다른 말과 글들을 재생산하곤 한다. 하지만 말과 차별화되는 글의 장점은 타인에게 전달되기 전에 수정 가능하고 글쓴이가 최대한으로 다듬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소통 수단' 으로서 글이 지닌 '마법의 힘' 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잘 다루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만의 돌과구를 찾는다면, 누구나 능숙하고 숙련되게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직한 해리포터' 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수리포트 공모대회 수상자가 들려주는) 글쓰기 노하우」발간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에서 주최하는 '우수리포트 공모대회' 수상자들의 글쓰기 노하우를 엮은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글쓰기에 대한 생각, 독서와 표절 등 글쓰기 전반에 대한 조언을 비롯하여, 리포트 준비 과정에서의 팁과 작성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노하우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대 학부생들에 한해 무료로 배부되며, 배부 장소는 글쓰기교실 상담실(61동 312호)입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